

특별취재



부안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2016년 부안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가 부안군(군수 김중규)과 국제교차리 3670지구 부안지역 4개(서해·해당화·부안·변산)클럽은 후원으로 고향나들이를 간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일 부안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16년 부안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항공권을 전달하고 부안군 다문화가족 8개 가정 30명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고향나들이에 나서게 된다.

특히 부안군은 지난 2013년 국제교차리클럽 3670지구 부안지역 4개 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세대 66명의 고향방문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17개 가정이 신청했으며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8개 가정 30명이 선정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결혼 이주여성 배우자 김모씨는 "10년 동안 고향 가지 못한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는데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받은 만큼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2일 역대 의장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현안 의정 시책 및 지역발전이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역대 의장 간담회에는 윤창호 전 군의장, 나우진 전 시의장 등 13명의 전 현직 의장이 참석해 김제시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등 유익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나병문 의장은 "오늘의 김제시의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역대 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해방 의원들도 시민의 행복과 삶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평선 산업단지, 종자생명 산업특구, 새만금 국제공항 등 김제시 현안사업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역대 의장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참석한 역대 의장들도 "희망과 변화를 선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보탬이 될 것이다"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바탕 한바탕 힘을 모아 김제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피서객 감염병 예방캠페인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에서는 여름철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발생 우려에 따라 금산사 계곡 및 아영장 주변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건강한 여름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서는 식중독 및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안전한 음용수 사용 등 개인위생 수칙과 여름철 야외활동 시 감염되기 쉬운 유행성뇌膜炎, 피부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쯤쯤기무시증 등 각종질환의 예방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어패류 생식 등을 통해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특히 간질환 당뇨병 등 저혈당이 약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어패류 생식을 금하고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김제시보건소는 "손을 올바르게 씻는 것 만으로도 질병의 70%가 예방이 가능하다"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손 씻기로 각종 질환을 예방할 것"을 당부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법령 맞지않는 자치법규 정비한다

김제시,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과제·법령근거 없는 규례 등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새만금의 중심이자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새로운 혁신의 바람으로 연내 정비한다.

김제시는 2일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법제처에서 조례제정개신 사례로 선정 통과한 50선 가운데 전수조사할 실시, 김제시에 해당하는 30건을 발굴하고 미개정 대상과제 조례 8건을 본격 정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 과제 건을 유형별로 보

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과제 3건, 상위법령 위반 과제 2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례가 3건으로 차지되었다.

또한 정부의 핵심과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는 푸드트럭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푸드트럭 존(zone) 설치 및 존(zone) 간 이동영업을 허용(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16.7.12.))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9개 유형(유원·체육시설 하천, 고속국도 졸음쉼터, 조례로 정하

는 장소 등)별로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 개정(2015.10.21.)에 따른 것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부서별로 청취하고 차질 없이 연내에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속한 자치법규 정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불편과 기업투자여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에로 사항을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주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공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의 정읍다품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 신지유통센터에서 직접 선별한 무게 6~8kg에 당도 11브릭스 이상 최상급의 씨 없는 수박을 일본에 수출해오고 있다.

'정읍 씨 없는 수박·방울토마토' 일본수출 확대

하반기 128톤으로 물량 늘어

정읍시가 지역 특산품인 '씨 없는 수박'과 '방울토마토'의 수출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이들 품목의 일본 수출물량이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시와 정읍다품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은 농산물 신지유통센터에서 직접 선별한 무게 6~8kg에 당도 11브릭스 이상 최상급의 씨 없는 수박을 일본에 수출해오고 있다.

씨 없는 수박의 경우 상반기에 40톤이 수출됐고, 하반기에도 당초 90톤을 수출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128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일본 현지 소비자 반응조사와 판로확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시 관계자와 정읍조공대표, 안길만 시의원 수박공산출회 회장 총무, (주)주생동 수출담당이 수입업체와의 협의를 갖고 수출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에서는 특히 당초 수출 목록에 없던 방울토마토

20톤도 새롭게 추가했다. 시는 "하달 말에도 후쿠오카와 도쿄 대형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정읍농특산품이 일본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정읍농산물의 지속적인 대일본 수출의 기반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현지 판촉활동 등을 통해 수출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을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해병대전우회 전북연합회 회원 60명이 수중정화활동 및 인명구조훈련을 가졌다.

수중정화활동·인명구조훈련

해병대전우회 전북연합회, 여름휴가철 맞아 격포항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안을 찾는 피서객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해병대전우회 전북연합회(회장 박영철) 회원 60명이 격포항 및 격포해수욕장 공항 일원에서 여름 휴가철 수중정화활동 및 인명구조훈련을 가졌다.

지난달 30일 박영철 전북연합회장과 김동영 부안 군지회장을 주축으로 부안군청이 협조해 격포항 요트계류장 주변 수중정화활동과 격포항·격포해수욕장·공항 해안가 쓰레기수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원들은 30℃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고무보트 4척 등을 동원해 수중과 항 내의 보이지 않는 쓰레기를 발굴해 수거하는 등 해병대 특유의 단합된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귀감이 됐다.

더욱이 해병대전우회는 지난 5월 치러진 제회 부안부실추계에서도 약 80여 명의 회원들이 오전 9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대로 교동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이 밖에도 해병대전우회는 인명구조훈련 등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해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박영철 해병대전우회 전북연합회장은 "앞으로 부안지역 무인도와 어선 접근하기가 어려운 섬지역을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이 지금처럼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격포항은 부안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고 위도 여객선이 출항하는 곳으로 부안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며 "격포항 등은 새만금방조제와 변산해수욕장 명소개발단지, 출포만 갯벌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부안의 해안관광지의 얼굴과 같은 곳으로 이번 봉사활동으로 쾌적한 관광여건이 조성돼 해병대전우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시, 무더위쉼터 225곳 일제 점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지난 1일 무더위 쉼터를 방문, 관리현황과 냉방기 가동 등 시설을 점검했다.

시는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 222개소와 면사무소 3개소, 모두 225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지난날 말부터 폭염에 따른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안전도시국장을 팀장으로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지원반 등 관련 부서 T/F팀을 편성, 운영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무더위 쉼터 냉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시 관계자는 "연일 38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모든 시민이 폭염으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he ad includes the text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